

1. 애벌레 잡기 놀이

개발자	성양호(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_응용
천동계곡에 살고 있는 조류에 대해 알아보고 애벌레 잡기 놀이를 통해 조류와 곤충의 번식, 생존전략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모듬원 간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활용대상	초등학생
활용시기	4월~11월
준비물	조류모형, 지끈, 보자기 등
소요시간	40분 내외
제작비용	5,000원 이하





운영사진1_애벌레 잡기 놀이



운영사진2_곤충의 보호색에 대해 알아보기

운영방법

1. 모둠을 나누고 놀이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먹이(애벌레)는 한 번에 한 개씩만 가져올 수 있다.)
2. 진행자가 애벌레(지끈)를 곳곳에 뿌린다.
3. 즐겁게 놀이를 진행한다.
4. 등지에 모아온 애벌레를 보자기 위에 모듬별로 놓아 결과를 확인한다.
5. 모듬별로 획득한 애벌레를 색깔별로 분류하여 곤충의 생존전략인 보호색에 대해 알아본다.

향후방향

놀이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곤충의 다양한 생존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참고내용

※ 곤충의 생존전략

- 보호색 : 주변 환경 색과 동일하게 하여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호랑나비 애벌레, 매미, 메뚜기 등)
- 경계색 : 눈에 잘 띄는 색깔과 무늬를 하여 천적이 경계하여 피해가도록 하는 것
(무당벌레, 장수말벌, 왕나비 등)
- 의태 : 색깔이나 무늬, 형태까지 주변 환경과 비슷하여 천적의 눈을 피하는 것
(자벌레, 대벌레, 나뭇잎벌레 등)

주의사항

- 놀이 공간 주변에 계절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 놀이가 과열되거나 경쟁구도가 되지 않도록 운영한다.